수입물가 폭등 … 10년來 최고

지난달 상승률 50% 돌파 … 국제 원자재가는 다소 떨어져

지난달 수입물가 상승률이 50%를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7월중 수출입 물가 동향'에 따르면 수입물가 총지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50.6% 올랐다. 이 상승률은 지난 98년 2월의 53.9% 이후 10년 5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총지수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지난 4월 31.3%, 5월 44.6%, 6월 49.0% 등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반면, 총지수의 전월대비 상승률은 지난 7월에 1.1%로 5월 10.7%, 6월 2.7%에 비해 둔화됐다.

이병두 한은 물가통계팀 과장은 "국제 원자재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입물가의 전월대비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작년과 비교하면 수입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으며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분야별 원자재가격의 작년 동월대비 상승률은 89.9%로 전월의 92.5%보다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중간재는 34.8%, 자본재는 16.3%, 소비재는 20.1% 등의 비율로 각각 올랐다.

품목별 전월비 상승률을 보면, 원자재에서 천연인산칼슘이 9.0%, 무연탄이 10.9%, 연광석이 4.0%의 오름폭을 보였다. 그러나 밀은 16.0%, 과일은 5.3%, 우라늄은 9.7% 각각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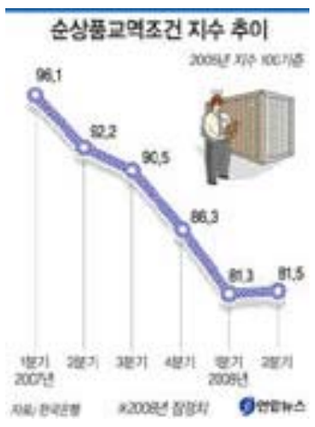
중간재에서는 비료 17.5%, 암모니아 10.0%, 열연강대 23.1%, 냉연강판 30.2% 등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반면 니켈은 11.5%, 백금은 7.4%, 아연괴는 8.4%의 비율로 각각 떨어졌다.

소비재에서는 냉장기기가 7.2%, 디지털카메라가 2.9% 각각 올랐는데 비해 휴대용저장장치는 11.7%, 쌀은 1.0%, 냉동어류는 1.0% 각각 내렸다.

한편, 수출물가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7월에 25.1%로 전월의 25.2%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연합뉴스

상반기 상품 교역조건 사상 최악

韓銀 2분기 동향 발표 … 수입단가 상승폭 수출단가의 2.5배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 상반기의 상품 교역조건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분기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동향'에 따르면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81.5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6% 떨어졌다. 지난 1분기의 이 지수는 81.3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1988년이후 가장 낮았다.

홍경희 한은 국제수지팀 과장은 "반기별로는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 않으나 상반기 순상품교역조건은 1988년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한 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뜻한다. 이 지수가 2분기에 81.5라는 것은 동일한 물량의 수출로 2005년에 100개를 수입할 수 있었다면 올해 2분기에는 81.5개만 수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순상품교역조건이 악화된 것은 수출단가의 오름세에 비해 수입단가 상승폭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2분기 수입단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4%로 올라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입단가 오름폭은 작년 3분기 3.5%, 4분기 13.6%에 이어 올해 1분기 21.3%로 뛰었다. 분야별로는 2분기에 원유가 67.8%, 철강재가 36.0%, 곡물이 54.5% 각각 올랐다.

반면 수출단가지수는 1분기 2.6%에 이어 2분기에 10.8% 올랐다. 석유제품은 78.4% 상승했으나 중화학공업제품은 3.5%, 경공업제품은 9.5%의 비율로 각각 오르는데 그쳤다.

한편, 전체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뜻하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2분기에 112.7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 하락했다. /연합뉴스

한달 앞둔 한가위 선물 고르기 농협유통(대표이사 조성봉)은 추석을 한달여 앞둔 14일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한가위 선물세트 평가회를 열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과일·채소·한우·수산 등 70여종의 선물세트가 전시됐다. /연합뉴스

휘발유도 1,700원대 진입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이 3개월 만에 ℓ당 1천700원대로 떨어져 당분간 이 가격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4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종합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날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9천700여 곳의 휘발유 평균값은 ℓ당 1천800.32원으로 전날보다 ℓ당 7.8원이 떨어졌다.

휘발유 가격은 5월 둘째 주(ℓ당 1천768.22원) 이후 가장 낮았다.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5월 셋째 주(ℓ당 1천816.98원)부터 1천800원대로 올라선 이후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7월 셋째 주에는 ℓ당 1천948.72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 7월 다섯째 주에 ℓ당 1천897.38원, 8월 첫째 주에 ℓ당 1천852.01원 등으로 하락했다.

한편 경유값은 14일에도 ℓ당 1천789.36원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외화유동성 사정 양호 9월 위기 가능성 낮다"

재정부, 점검회의 결론 최근 제기되고 있는 9월 외화유동성 위기설에 대해 정부는 위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제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9월 외화유동성 위기설을 점검했다.

재정부는 전세계적인 신용경색으로 해외차입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내 자금시장의 외화 유동성 사정이 양호해 9월 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재정부는 우선 중공업 선물환 만기도래, 해외투자펀드 환헤지 물량 감소로 달러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로 전환함에 따라 최근 대형 수주에는 선물환 계약이 줄어들고 있다"며 "해외펀드에 대한 인기가 떨어진 것도 환 헤지 물량 감소로 연결돼 달러 공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선제적으로 외화자금 확보에 나서면서 10월까지 여유자금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기업 해외차입 허용 등 제도적 개선도 달러 공급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국민주, 10년만의 귀환?

공기업 민영화 지분매각 국민 참여방안 고려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지분매각에 국민 참여방안을 밝히면서 1990년대 말 이후 사라졌던 국민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방안은 일반 국민의 참여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에서 과거 국민주 방식을 떠올리게 한다.

국민주는 국민에게 공기업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민영화의 명분을 살리고 지배구조의 집중을 막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국민주의 대량 보급은 시장에 물량 부담으로 작용한 전례를 감안하면 가뜩이나 침체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지분 매각대상에 일반 국민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 10년 만에 국민주가 민영화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됐다.

13일 공개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력 집중 견제장치의 일환으로 일반공모와 우리사주 방식을 도입, 일반 국민과 해당 공기업 근로자가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가공인중개사
☎(代)234-8218 핸 011-609-0898
(광주우체국부근)
상가건물 매도
·금남로 대로점 대지 231㎡(70평) 5층 20억
·충장로 대지 230(70평) 5층 18억
·충장로 대지 208(63평) 4층 18억
·충장로 대지 165(50평) 4층 23억
·황금동 대지 132(40평) 3층 10억
·광산동 구시청 대지 537(163평) 4층 15억
·불로동 천년대로변 코너 대지 294(89평) 4억
·용봉지구 3번도로 인층 대지 1,190(360) 8억
·월산동 대로변대지 390(118평 6층 6억5천만
토지매매
·은림동 4차선접 2,627㎡(804평) 당 160만
·은림동 녹지 3,966(1,200평) 2억4천만
·월남동 대로점주거지 1,090(330평 4억8천만
·봉선동 25m접 2,315(700평) 3.3㎡당 250만
·도천동 자연녹지 16,530(5천평) 3.3㎡당 75만
·도산동 전철역앞 주거지 6,611(2천평) 20억
·안청동 주거지 11,900(3,600평) 3.3㎡당 80만
전원주택
·청풍동 주거지 760㎡(230평) 당 70만
·금곡동 주거지 1,490(450평) 1억4천만
·은림동 대지 463(140평) 한옥 1억1천만
·지산동 녹지 3,640(1,100평) 3억5천만
·담양 창평 소재지 대지 2,300(700평) 2억
·화순 남면 대지 660(200평) 한옥 4천만
임야
·화순 도곡 관리지역 52,900㎡(1만6천평) 당 8만
·화순 도곡 야산 105,700(3만2천평) 3억
·화순 도곡 3,200평 3.3㎡당 6만
·화순 남면 관리지역 165,000(5만평) 5억
·화순 한천 218,000(6만6천평)3.3㎡당 6천원
·화순 이양 53,000(1만 6천평) 9천만
기타부동산
·조대 대로변접 대지 760㎡(230평) 8억
·금호동 종원@ 대로접 330평 3.3㎡당 400만
·화순 계곡접 6,600(2천평) 8천만
·보성읍 자연녹지 30,000(9천평) 1억3천만

상무랜드공인중개사
☎(代)383-5221 핸 011-609-5221
(구상무대 정문)
▶건물
▪ 대607/건1,352 보36억/월 3,000만원 매매가 85억
▪ 대142/건200 보1억/월세 1,000만원 매매가 15억 5천만원
▪ 대260/건2,000 보20억/월 4,000만원 응자 18억 매가 65억
▪ 대200/건900 보30억/월 2,000만원 매매가 55억
▪ 대300/건1,200 보4억/월 1,100만원 매매가 24억
▪ 대125/건175 보1억/월 800만원 매매가 15억5천
▶땅
(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 3,421㎡(1,050평 3.3㎡당 700만원
▪ 2,800㎡(850평) 3.3㎡당 1,200만원
▪ 727㎡(220평) 3.3㎡당1,200만원(유통)
▪ 450㎡(136평) 3.3㎡당 850만원(유통가)
▪ 330㎡(100평) 3.3㎡당 800만원(사적임구)
(기타지구)
▪ 자연녹지 대로변 3,000평(예식장, 학원적합) 평당 180만원
▪ 생산녹지 대로변 3,000평(예식장, 학원적합) 평당 250만원
▪ 주거지역 800세대 아파트입구 877㎡(266평) 3.3㎡당 350만원(슈퍼적합)
▪ (농장) 광산구 동산동 73,000㎡(2만2천평) 농장 3.3㎡당 9만원(동산동)
▪ (쌍촌동) 대지 512㎡(155평) 20m 도로접 3.3㎡당 265만원
▪ (장등동) 3,760㎡ (1,140평) 평당 40만원
▶병원·학원·수퍼·식당 기타
▪ (하남삼성홈플러스옆 시거리치도) 근린지구1,652㎡(500평) ㎡당 600만원
▶모텔·호텔매매·사우나
▪ 객실35개 용자16억 매가28억
▪ 객실70개 매매가38억
★24시간 전화 물건 접수합니다★

HOMECON 홈컨 不動産 리서치
상무지구 한국은행 뒤 ☎ 062)385-9994
(부동산) 프로젝트 仲介 · 開發 · 리서치 선인!

공동대표 김윤삼
·호남대 부동산학 석사
·한국 농촌공사 근무
·상무지도서부동산백과 출강
·부동산개발의 부적본 책(논문)
·부동산중개실무 18년

공동대표 박길수
·청군광메 회장
·청성고(동기회, 불회, 법무)
·부동산업 실무교본 저자
·TV패널, 재테크강의 등
·부동산업계 최고 전문가

공인중개사 소장 정문호
·육기지목 역무 6년
·토지거래허가등 조차장장

공인중개사 소장 김기영
·LBA부동산전문교육 이수
·상가업계분석 담당
· 밥은 것보다 큰 이익을 줍니다.
· 얼굴을 걸고, 책임 있게 합니다.
· 천천히, 정밀하게 합니다.
· 차분하고 정돈된 사람들입니다.
· 고객에게 늘 _ _ 을 줍니다.
(2억이상) 분석된 물건수 (정비중) 건
(2억이상) 의뢰 고객수 (정비중) 분
※ 프로젝트 승계, 개발, 리서치 및 고객의뢰후 시장, 입지, 사업타당성, 위험도분석등을 기반으로, 최적 물건이나 성공 조건등을 전문 리포트로 추출하여, 책임있게 거래하는 중개 등을 말함.

금당부동산
☎(062)223-7400 핸 016-632-5659
(충장로5가 사거리 2층, 금남로 5가와 엔터시네마 중간)
매매·교환·개발·건축부동산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공시가·감정가 70%이하
⊛농성동 준주거200평 공시가 9억7천 매도6억4천
⊛임동71평 공시가1억7천 상가원룸적합 1억2천
⊛용산동 소방도로코너 대지45 건평103 일부는 공실이고 전세3천 월58만원 매도1억5천5백
⊛안미시술소. 노래방등 경매물건 우산동 대지185 건평624 법상가 18억 매도 9억
⊛양등 상업지 123평 원룸,다세대 적합 대출 2억 공시가 3억2천 매도 2억4천
⊛월산동 4차선도로 117평 공시가4억6천 매도 3억
감정가이하
⊛대인동 대지100 건평367 노래방·PC방 원룸·투룸 18개와 주택 45평 법인이전합 8억3천
⊛신안동 나대지 94평 공시가 3억3천 매도2억4천
⊛북동병원 대지123 건평220 공시가3억2천 매도4억
⊛금남로5가 목욕탕 340평 법상가 9억 매도 5억 전세2억 월230 임대도 가능
⊛호남동 세무서 건너 대로변106평 9억6천
⊛풍향동 주택과 여관 대지108 건평 138 주택 4채는 6천에 임대중이고 여관은 원룸으로 개조 적합 대출1억2천가능 매도 1억9500
⊛수기동 버스도로 대지33 건평118 공시가2억 2,3,4층은 공실 현재는 전세6천 매도2억8천
⊛금남로5가 큰사거리 부근 4층건물 대지15 건평49 다양한 용도 2억3천
⊛대인동 버스도로 4층건물 대지23 건평77평 3층은 공실 1억6천5백
투 자
⊛벽진동 대지124 주택은 수리해야함. 공시지가 9천4백 매도9천만원
⊛다용도사용 마륵동 575평 공시가5억 매도5억4천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관리지역임야2800평 국유지400평도사용가능 복지시설등적합 3억2천
⊛장성군 삼계면 서창주거지 989평 1억천
⊛소촌동 331평 공시가2억3천 매도 2억천
⊛전원생활적합 광산구 송산동 대지450평 호남대학에서 6분 공시가1억3백 매도1억4천
⊛전원주택지 개발된곳 담양군 남면 3556평 대출7500 매도1억7800만원
⊛월름적합 나대지 광주공원부근 143평 1억8천
⊛담양군 대덕면 고속도로 대덕터널부근 관리지역 임야 5455평 복지시설, 종교시설 적합2억 3천
⊛담양 금성면 도로접 관리지역 답3800평 공장, 복지시설등 적합 1억4천
⊛동구 소태동 2차선도로 439평 공장, 창고, 복지시설등 적합 대출1억8천 매도 2억3천5백
매도·교환
⊛공장부지 담양군 무정면 1050평 1억5백
⊛나주 노안면 학산리 대지206 건평25 마트나 양동금호아파트와 교환가 1억6천
⊛절(사찰) 광산구 산정동 아파트와 상가지역 대지61 건평87 대출1억3천 매도2억8천
⊛절(사찰)산수오거리 3층건물 1억6천
⊛담양군 추월산 밑 담양댐에 접한 땅1090평. 별장·연수원·사찰·요양병원적합 3억2천만원
⊛명당 전원주택지 곡성읍 서계리 광주에서20분 대지483평 오피스텔아파트. 상가와교환 6천만원
⊛전원주택 나주 남평 풍림리 한옥 땅255평 9천만원
⊛묘지15기 만들어진곳. 담양군 용산면 국도접 800평 명당자리임. 광주에서10분 8천만원
⊛강진군 군동면 녹차밭6천평 포함한 밭18,000평 건물과 교환 5억8천
⊛능성동 대지44 건평120 전세1억 월40, 2억6천
⊛구례군 섬진강부근 땅 38,425평 수목원,펜션,종교시설,약초재배적합 주택있고 6억5천
이전만해갈 물건
⊛신안동 대지75 건평 293 전세3천 대출2억5천 가능 지하, 1층일부 3·4·5층 공실 2억8천5백
⊛북구 우산동 대지70 건평 150평 감정3억5천 전세 7300은 내주어야하고 대출 1억8천 매도700
⊛남광주시장 원룸19개 대출1억3600 원룸9개 전세4천 월150만원 원룸10개는 공실 매도3800만원